

‘농가수입 감소’ 매출 하락 ‘원자재값 상승’ 수익 압박받아

매출 작고 비전략 제품 철수한 바이엘, 부진속 선두 계속 유지
‘재배면적 증가·물가 개선·기후조건’ 등으로 2007시장 0.9%성장 전망

-홍보부-

용도별 2006매출 현황

제초제 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하였으며, 농약시장의 46.4%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요인을 보면 유럽,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건조한 기후로 인한 낮은 잡초발생과 미주지역에서의 제초제 저항성 작물 확산, Glyphosate의 가격 및 수량 회복, 사탕무의 강한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살충제 시장은 전년도에 비해 2.9% 감소하였고, 전체 농약시장의 26.3%를 차지하였다. 주요요인을 보면, 연초의 낮은 해충 발생과 피레스로이드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제네릭 경합, 해충 저항성 작물 확산, 오래된 제품 철수 및 신제품 대체 등이다.

살균제 시장은 전년도 보다 3.5% 감소하였으며 세계 농약시장의 22.3%를 차지하였다. 이는 열악한 기후로 발병 감소, 미주지역에서의 대두 역병 살균제 수요 약세, 일본의 수도 살균제 시장 경합에 의한 것이다.

기타제(생장조정제, 훈증제, 기타제 등) 시장은 지난해보다 1.6% 감소하였으며, 농약시장의 4.9%를 차지하였다.

2006용도별 약제의 매출 및 성장

용도별(백만\$)	2005	2006	증감(%)
제초제	15,081	14,920	△1.1
살충제	8,727	8,471	△2.9
살균제	7,448	7,185	△3.5
기타제	1,611	1,586	△1.6
계	32,867	32,162	△2.1

지역별 2006매출 현황

북미지역은 1.4%감소하였으며, 세계농약시장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요인으로 는 GM작물, 특히 GM 옥수수 증가와 상반기 열악한 기후, 농가 경영비 증가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 등이다.

남미지역은 3.2% 떨어졌으며, 세계농약시장의 17.6%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요인은 환율강세로 농가 수출 및 수입 감소, 아시아 대두녹병의 낮은 발현, Glyphosate 저항성 대두 확산 등이다.

서유럽지역의 매출은 3.5% 감소하였으며, 세계농약시장의 21.3% 차지하고 있다. 주요요인은 연초 낮은 기후에 따른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 밀에서의 제품변화를 일으킨

Strobilurin계 농약, 전년도 가뭄에서 벗어난 남부 유럽 등이다. 동유럽지역은 7.7%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계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요인으로는 상반기 열악한 기후로 매출 영향, 농경제 발전으로 인한 성장 국면 등이다.

극동 지역 매출은 2.3% 떨어졌으며 세계농약시장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요인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심한 가뭄, 일본의 시장 정체 및 한국 시장 감소, 중국 농약시장의 성장 등이다. 기타지역에서는 2.8%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세계농약시장의 7.2%를 차지하였다.

주요요인은 인도의 Bt 면화 재배 확산, 아프리카 정치분쟁으로 인한 시장발전 저해 등이다.

지역별 2006매출 및 증감현황

지 역	2005(백만\$)	2006(백만\$)	증감(%)
북 미	8,642	8,520	△1.4
남 미	5,860	5,675	△3.2
서유럽	7,112	6,861	△3.5
동유럽	1,232	1,326	7.7
극 동	7,627	7,452	△2.3
기 타	2,394	2,328	△2.8
계	32,867	32,162	△2.1

작물별 2006매출 현황

과일과 채소에서의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하였으며, 농약시장의 29.6%를 점유하고 있다. 기후로 인한 살균제 및 살충제 매출 감소와 제네릭 제품 증가, 중국시장 성장 등의 요인때문이다.

밀에서의 매출은 2.5% 감소하였고, 전체 농약시장의 16.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Triazole계와 Chlorthalonil의 선호에 따른 Strobilurin의 매출 감소와 늦은 봄과 건조하

고 뜨거운 여름으로 농약 수요 영향, 낮은 밀 재고로 밀 재배를 자극하여 4/4분기 실적 호전, 동유럽 시장 발달때문이다.

벼에서의 매출은 4.6% 감소하였고 전체 농약시장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재배면적 감소와 신제형 개발에 따른 일본농약 시장 경쟁 심화, 미국에서 GM 벼의 비승인에 따른 수출 문제 때문이다. 옥수수의 시장은 3.7% 떨어졌으며, 전체농약시장의 9.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재배면적 감소, 제초제 저항성 및 충(蟲)저항성 옥수수의 확산, 에탄올 산업의 가격 부양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이다.

작물별 2006매출 현황

작 종 별	2005	2006	증 감
	백만\$	백만\$	%
밀	5,346	5,210	-2.5
면화	2,801	2,698	-3.7
과일 및 채소	9,704	9,512	-2.0
옥수수	3,010	2,898	-3.7
캐놀라 및 유채	501	510	+1.8
벼	3,070	2,929	-4.6
대두	3,102	3,056	-1.5
사탕무	610	518	-15.1
기타	4,723	4,831	+2.3
합계	32,867	32,162	-2.1

면화의 시장은 3.7%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약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서 Bt 면화 재배 강한 성장과 미국에서 GM 작물 전환, 중국 섬유산업의 면화에 대한 강한 수요 때문이다.

대두에서의 매출은 1.5% 감소하였고 전체 농약시장의 9.5% 점유하고 있다. 낮은 대두 녹병 발현으로 수요 감소, 미국에서

Glyphosate 매출 증가, 브라질에서의 Glyphosate 저항성 대두 확산 때문이다.

사탕무의 시장은 15.1%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약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EU 설탕 정책변화에 따른 급격한 감소, 동유럽에서의 증가 때문이다.

유채의 시장은 1.8% 성장하였고 전체 농약 시장에서 1.6%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Biodiesel)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재배 증가 및 심한 가뭄으로 인한 오스트레일리아 시장 위축 때문이다.

2006 회사별 분석

2006년은 대체로 시장 선도 회사들에게는 어려운 한해였다. 좋지 않은 기후, 잡초 및 해충 발생 감소, 농가수입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익이 압박되었다. 상위 11개 회사 중 7개 회사는 성장하였고 4개 회사는 위축되었다. 달러 기준으로 매출 실적 차이가 +8.1%(Monsanto)에서 -5.7%(BASF)까지 이르고 있다.

몇몇 회사의 성장은 대부분 생산라인 및 회사 인수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Makhteshim-Agan은 Control Solutions와 Kollant를 합병하였고, Nufarm은 Agrophen을 인수하였으며 반면 Arysta Lifescience는 BASF의 Micro Flo를 사들였다. 동시에 Bayer과 BASF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제품 합리화 추진으로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

상위 11개 회사의 매출 순위는 변하지 않았으나 선두 2개회사의 차이는 Syngenta의 실적 호전으로 계속 좁혀졌다. Bayer Cropscience는 매출이 좋지 않았지만 산업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브라질 대두 녹병 시장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미 사업도 제네릭 경합과 GM작물 확산으로 좋지 않았다. 바이엘은 작고 비전략 제품을 계속 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을 Prothioconazole, Mesosulfuron, Clothianidin과 같은 신상품으로 부분적으로 만회하고 있다.

Syngenta는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2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Thiamethoxam, Paraquat, Glyphosate와 같은 주요 제품의 강한 성장과 Pinoxaden의 성공적인 출시로 이루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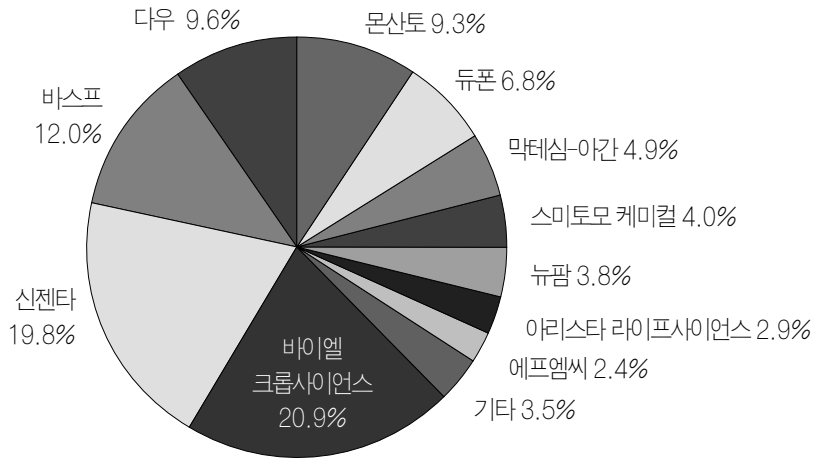
반면 세 번째로 큰 BASF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Micro Flo의 Arysta Lifescience로의 판매가 주요 요인이었으며 유럽과 브라질에서 살균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또한 Phorate, Triforine, Imazamethabenz와 Terbufos와 같은 많은 제품 철수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3개 미국기반 회사 중 Monsanto는 다시 최고 실적을 보였다. 이 회사는 선도 그룹에서도 최고 실적을 거두었다. 주로 미주지역에서 Glyphosate 저항성 작물 재배 증가로 Glyphosate 수요가 늘어 매출이 증가되었다.

Dow Agrosciences 매출도 높았다. 유럽과 남미에서 매출 증가가 북미와 아시아 지역의 매출 감소를 반전하였다. Dupont 매출은 미국 옥수수 면적 감소, GM 작물 경합과 유럽과 브라질에서의 살균제 판매 부진으로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Makhteshim-Agan은 2006년에도 인수와 신제품 출시로 상승 기조를 지속하였다. 인수

회사별 2006농약시장 점유율



시장규모 = \$32,162m

는 Nufarm과 Arysta LifeScience에서도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Nufarm 실적은 오스트레일리아 자국 시장이 심한 가뭄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북미에서 Micro Flo로 인수로 Arysta의 매출이 급상승하였다. 남미 매출감소와 무역에서 마케팅과 유통으로 전환하려는 회사 전략으로 인한 감소를 반전하였다. 일본회사 Sumitomo Chemical은 자국내 시장이 나빠 매출이 다소 떨어졌다.

2006년 FMC 매출은 다시 증가하였다. 선도회사들 중 2번째로 실적이 좋았다. 90년대 중반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사탕무와 같은 특별한 분야에서의 집중이 영향을 주었다.

Syngenta, Dow, Monsanto, Makhteshim-Agan, Sumitomo Chemical, Nufarm, Arysta LifeScience와 FMC 모두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많이 감소한 회사는 Bayer CropScience와 BASF, DuPont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개 회사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회사는 Bayer CropScience로 20.9%를 차지하였다(전년보다 0.1% 감소). 두 번째로 큰 Syngenta는 시장의 19.8%를 점유(전년보다 0.6% 증가)하였고 BASF는 0.5% 떨어져 시장의 12.0%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회사들은 10%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Monsanto에서 볼 수 있는데 0.9%가 증가 하였다.

2007 시장전망

2007년 농약시장은 명목성장으로 0.9% 성장한 32,465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본적으로 재배면적 증가와 물가 개선, 생화학연료 수요 및 기후 조건 상승 등이 성장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GM 작물, 제네릭 제품 가격 침식, 지속되는 연료와 비료가격 상승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Y